

한국의 현대 중·소규모 미술관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osition Characteristics of Space of Contemporary Medium/Small Scale Museum in Korea

오세두* / Oh, Se-Doo

정운화** / Jung, Un-Hwa

Abstract

In 1990s, the necessity of the Korean contemporary medium/small scale gallery as a place of experience rather than that of simple viewing has increased to meet from the requirements of the pluralistic and popularized society. The gallery makes efforts to form a collective street to cope with the influential of the power large scale cultural space as well as finding a novel direction in order to derive the regional sympathy in connection with the culture space of the neighborhood.

In this paper, we study the 1990s Korean medium/small scale gallery in two aspects: First, the architectural techniques and elements, which are introduces the audience to both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constructed by the 1990s gallery architecture, are investigated. The conventional architecture shows the blocking of the neighborhood and the trend of severance when viewing from both the architectural and the civil points. Secondly, we present the design characteristics from the several points of view such as conceptual, spacial, visual angles. The various trends of works in exhibition of the fine arts can provide a means for producing a great deal of variation in recent gallery architecture when viewing from a stage standpoint of exhibition space.

키워드 : 중·소규모 미술관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한국의 문화시설 건립은 공연 집회시설, 전시시설, 도서자료시설 등의 대규모, 대형 실내 공간이 시대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건축가들은 건축 내외의 공간에 있어, 자신의 디자인 경향의 개발과 동시에 대규모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한국 전통적인 디자인과의 접목에 고심하였다. 그 이전의 문화시설물의 부재로부터 시대와 장소를 대표하며 보편적 가치를 함축한 공공적 성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였을 것이다.

문화시설이 한 단계 발전하는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원화되고 대중화된 사회적 요구에 걸맞는 중·소규모의 문화시설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80년대 전시공간의 의미는 단지 관람의 장소(Place For Audience)로써 만족해야 했지만, 90년대에 들어와 관람인의 요구가 차별화 되고 복합적인 문화 공간의 요구로 인해 단순한 관람이 아

닌, 체험의 장소(Place for Experience)로 그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가 접하는 문화적 공간이 체험의 장소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최근 서울의 여러 장소에서의 문화시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전시공간에서는 전시품이 미술관 계획의 중심적 주제였다면, 현재는 관람자가 전시공간 내에서 편안히 감상할 수 있는 공간적 주제로 그 의미를 변환하였다. 기존의 인사동이나 명동 등의 구 시가지에 형성된 미술관과는 달리 평창동, 삼청동, 소격동, 부암동, 청담동 등지에서 중소형 미술관들은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시 기능 중심의 전용 건물로 신축되고 있다. 또한, 이들 미술관은 집단적인 가로를 형성하거나 이웃의 문화공간과 연계된 지역적 공감대 형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국가적 시책에 의한 대규모의 전시공간과는 달리 이들 미술관은 민간 차원의 지역 특성 개발이라는 점에서 도시의 일부분을 문화 공간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공간은 공공시설로써 순수 전시 목적의 경우와 사업 공간의 목적을 복합적으로 겸비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국립 미술관 등의 대형 미술관이 전자의 경우라면, 후자의 경우는 지역적, 군집적 지역을 형성하는 중·소규모의 사설 미술관들이 그 대부분의

* 정회원, 신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전임강사

** 정회원,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경우로 나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90년대 전후로 등장하고 있는 중·소규모 미술관이 기존의 대형 전시공간과는 다른 차별적 전시공간으로서의 의미적 변환을 시도함과 동시에 이러한 시도가 공간구성의 특성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한다. 단순하고 폐쇄적인 외관과는 달리 내부공간은 전시물들의 다양한 특성에 맞게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용자들은 '걷는다'라는 전제하에 전시물들을 감상함과 동시에 미술관 내부공간을 탐색하게 되며, 타 건축공간과 구별되는 동선의 처리는 공간내부에서 가능한 한 장시간의 체험이 요구된다. 물리적인 이동과 동시에 체험되는 시각적 움직임의 효과는 전시물의 감상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효과를 발휘시킬 수 있는 노력으로 내부공간의 형태와 구성의 변화를 부추겨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중·소규모 미술관 공간구성은 내외부가 연계된 동선의 순환을 적극 도입하여 협소한 면적의 극적 효과를 의도하고 있으며 건축공간구성의 구체적 수법으로서 다양한 연출이 나타난다. 이러한 수법을 통한 의미적 변환은 시대적 요구에 따른 대중적인 문화 공간으로 그 맥을 같이 한 결과이며, 문화적 체험을 부각시킬 수 있는 건축적 해결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미술관 건축의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요구하기도 한다. 심미적 측면에서 부각되는 미술관 건축의 공간구성 특성이 타 용도의 중·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적 경향에 새로운 방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90년대 이후, 서울 도심부 내 전시 기능을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미술관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관점에 해당되는 미술관 건축을 사례 분석하여 연구의 범위로 설정한다.

첫째, 건축·도시적 측면에서 중·소규모 미술관의 공간구성적 특성을 파악하면, 대부분의 기존 도시 건축물들이 이웃 블록과의 단절적 상황을 형성하는 건축적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본 연구 대상 건축물은 주변 맥락들을 파악하여 건축물에 독립적인 내·외부 공간을 확보하는 경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는 미술관 건축에 한정시켜 볼 때 전시 공간과 서비스 공간과의 내·외부 동선 체계에서 매개공간 즉, 공간과 공간 사이를 이어주는 계단, 연결복도, 램프, 담, 벽 등의 건축 요소로 표현되며, 건축 매스와 건축 재료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다양성을 의도한다. 본 연구 대상 건축물의 구체적 분석에서 도출된 건축 요소와 공간적 특성을 분류하여 사례 분석에 앞서 논리적 근거로 제시한다.

둘째, 공간연출적 측면에서 보면 근간에 나타나고 있는 미술품들의 특성은 과거 평면회화를 단순히 구상과 추상으로 분류하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형태적, 재료적 변화로 인해 미술작품 상호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미술관이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전시품에 대응한 건축 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어, 미술관이 단순히 전시 작품의 배경적 역할뿐만이 아니라 심미적

기능에도 충실한 3차원적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건축적 오브제'의 전시 공간은 개념적, 공간적, 시각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¹⁾ 관람자가 산책하고 탐색하는 또 하나의 전시품인 전시 공간은 건축 역사를 통해, 그 이론적 배경과 전시 수법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본 연구 대상 건축물을 바탕으로 하여 건축적 논리를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미술관은, 공간구성적 특성에서 첫 번째의 경우에 해당되는 주변의 맥락적 상황을 반영한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두 번째 경우의 공간연출적 측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여부를 떠나 단순한 외관의 변화뿐만이 아닌, 전시작품이 공간구성의 중요한 개념으로 적극 반영되어진 미술관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건축물의 주요한 공간구성 개념과 공간연출적 특성의 핵심적인 사항을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2, 3장에서 서술하였으며, 그 구체적 사항은 4장에서 분석하였다.

2.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미술관 고찰

2.1. 미술관의 성향과 특성

90년대에 들어서 미술관의 건축 규모는 시설의 종류와 이용대상, 부지조건, 경제적 여건, 시설의 수용력, 환경요건, 기술적 지원 요건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규모의 설정에 있어서 다각도의 접근 체계에 의해 신중한 비교분석이 요구되며²⁾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한 미술관의 건립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그 대부분이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의 미술관과 대별되는 것으로서, 공간 계획과 전시연출 측면에서 대형 전시 공간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되어질 수 있다.³⁾

첫째, 과거 대형 전시공간은 내부 전시 공간 동선을 강제 순환 방식을 도입하여 전시실의 순차적 이동에 따른 관람을 유도하였다. 이는 건축가의 강압적이고 절대적인 프로그램에 따른 건축 공간의 구성을 통해 '공간의 효율과 명쾌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1) Levin은 미술관 건축을 사원 유형(temple type)과 진열장 유형(showroom type)의 두가지 유형 분류 방식을 제시한다. 이 중 사원 유형의 미술관은 관람객들이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나 순수한 미학적인 경험을 획득하는 곳이며 따라서, 탐미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건축가의 작품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반면, 진열장 유형은 일상 생활의 연장으로서 가볍게 즐기고 여가를 선용하는 목적으로 계획된 미술관을 지칭한다. Levin, M.D. The Modern Museum: Temple or Showroom. Jerusalem: Dvir Publishing House, 1983

본 연구에서 미술관들의 사례는 건축적 개념의 경우 전자에, 기능적인 경우 후자에 만족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미술관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2) 임재진 외, 박물관의 전시·환경 지침에 관한 연구, 홍익대 환경개발 연구원, p.15

3) 김태수 설계의 '국립 현대 미술관', 이성관 설계의 '전쟁 기념관' 정립 건축의 '국립 박물관' 계획안 등의 국가에서 건립한 대규모의 전시 시설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 시립 문화 시설이 1980년 중반을 경계로 하여 기본적인 골격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대규모의 문화 공간은 공연 집회 시설, 전시 시설, 도서 자료 시설, 상업 시설을 복합한 대형 실내 공간으로 문화 시설의 하부 구조를 형성하는데 밑받침이 되었다.

해되었다. 둘째, 대규모의 전시공간인 경우, 주로 대형 아트리움이나 원형 로툰다의 로비를 중심으로 한 단위 조합들로 덧붙여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일직선상의 균질한 전시 공간을 형성하여 자칫, 단조로운 공간을 연출하게 되는 위험이 따르므로 규모에 따른 신축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대규모 미술관의 경우, 기본적 계획에 있어서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어 건축물 내·외부의 보편성의 가치를 표현한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90년대의 중·소규모 미술관은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대규모의 지역을 수용하기보다는 인근 주변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적 복합 문화 시설의 경향이다. 그러므로 장소성을 고려하여 주변으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한다. 둘째, 일관된 문화적 사상과 배경을 구별하는 전문적인 문화 공간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되, 대중적인 호응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의도한다. 셋째, 규모나 시설의 측면에서 대규모의 전시 공간보다 인지도가 낮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집단적인 거리나 지역을 형성한다. 그루핑(Grouping)의 경우, 각종 문화 기획을 통한 지역적 특성을 부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넷째, 전시와 타 장르와의 적극적인 교류로 일반 대중의 문화적 체험을 증진시킨다. 각종 예술 공연을 기획하고 건축에 적극 반영한다. 다섯째, 경영개념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운영 효율적 측면이 고려되어진다.

2.2. 전시 기획과 공간 구성

90년대 전시 공간의 공통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전시 기획 및 운영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첫째, 지역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적 차원에서 명소로의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로 인한 문화적 영역의 테마적 기획도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차별화된 문화 공간의 기획은 복합적 문화 시설과 단일 문화 공간으로 대별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문화 공간의 특정 계층의 이용에 분산적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전문가와 대중 각각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신축적인 전시 효과를 의도한다. 셋째, 위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 공간 중심형의 개발 계획은 지역의 특성(역사성, 주변 맥락형성), 이용자들의 특성(연령층, 취향), 건축주의 요구 등과 더불어 지역 내의 주민 및 전문가들을 통한 마케팅 조사를 통해 세부적인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소규모 전시 공간의 성향과 특성은 주변 맥락과의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분석으로 계획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경영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함축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중·소규모 미술관의 공간 구성 및 동선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첫째, 비교적 협소한 대지면적을 바탕으로 한 도심지 내의 중·소규모 미술관은 충분한 전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순한 외관으로 내부의 면적을 최대한으로 확장시킨다. 이러한 경우, 내부공간

의 유용성, 가변성, 융통성의 장점이 부각되어 다각도의 전시 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둘째, 전시 공간의 경우, 전시물의 배치상 부득이하게 폐쇄적 외관을 가지며, 내부공간은 기획 전시에 대해 자유로운 개방적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형태는 전시공간의 개방적 디자인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동 파티션과 전시 조명의 유동성 있는 섬세한 계획을 필요로 한다.

셋째, 공공성으로 인한 외부 오픈 스페이스의 필요성이 있는 대형 전시공간과는 달리, 중·소규모의 전시시설은 내부 전시공간과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지는 외부 공간을 의도한다. 이는 전시동선의 연계상에서나 건축의 형태적 측면에서 보여지고 있다.

3. 전시 연출에 따른 미술관 고찰

3.1 공간 구성의 특징적 수법과 요소

(1) 한국 전통 건축의 배치와 동선의 이용

1980년대 대형 문화시설의 계획에서 건축가들은 한국 전통적인 지역성의 표현에 보편적 가치를 두고 그 기본적 방향을 설정하였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적 공간과 서구의 공간과의 혼재 속에서 한국 전통 건축 표현은 의장적 측면에서만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형 전시 공간의 외부 공간 즉, 앞마당은 필수적인 영역으로 채택되었으나 내부 공간과 연계성이 결여된 채 기능적·의미적인 면에서 가치를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중·소규모의 미술관의 경우 한국의 민가나 절에서 보여지는 건축적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규모적인 측면이나 배치적인 측면에서 비교적 유리하였다. 이는 대규모의 문화시설의 거듭된 경험으로 얻어진 결과로서, 서구의 실험리주의적 사고를 한국적 해석으로 전환한 것이다. 그 다양한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과거와 현재의 시간성을 상징화한 건축적 표현에 의미를 두고 지역적 맥락을 도입한 건축 어휘를 사용하였다. 과거의 건축적 흔적을 남기면서 현재를 '덧쓰기'하는 은유적 기법을 개축의 경우에 사용하거나, 과거 문화에 대한 관습적 상징을 단순화 작업을 통해 재창조하는 다각도의 표현이 시도되었다.

둘째, 주변의 풍경을 적극적으로 건축에 인입시킨다. 주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상황에서 조망의 확보 및 내부공간에서 외부로의 시각적 조망 확보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건축물 배치에 내·외부의 공간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동선

4) Mies는 자신의 free plan의 공간 개념을 'German Pavilion(1929)'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 있으며, 'Museum for a Small city(1942)'계획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방 공간의 임의성과 가변성을 연구하였다. Corbusier와 Wright의 경우, 강제 순환 방식으로 공간의 연속성을 도입한 반면에, Mies는 관람 동선의 상대적 선택을 수용하는 공간 구조에 그 의미를 두었다. 이는 전시 공간의 중심성의 부정으로 집중적인 관람 행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현대 미술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변화 가능한 공간에서 전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규모 미술관에서 적극 수용되어지고 있다.

을 해결한다. 중·소규모의 대지 조건으로 인해 외부 공간의 활용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반면에, 내부 공간과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한국 전통 건축에서의 일반적인 건축 수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법은 관람객들에게 내부와 외부 및 중성적인 매개 공간을 구분시키지 않으면서 움직임에 따른 시각적 변화를 경험하게 한다.

넷째,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규모의 매스로 분절시킨다. 분절된 건축물의 사이공간은 마당, 길, 다리 등의 융통성 있는 매개공간으로 전체 배치를 완성시킨다.

(2) 공간 속의 공간

건축물의 규모나 외부 테두리 영역은 대부분이 가로의 형태나 주변 건물과의 조화도에 그 결정력을 가지게 된다. 특히, 도심 가로변의 경우 비교적 협소한 외부 공간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축물은 경제적인 면이나 법규적인 면에서 단순화한 외관 형태를 고수하기 쉽다. 미술관의 경우, 관람객들에게 심미적 측면의 배려로써 생활 공간에서 보여지는 것과 다른, 내부 공간의 변화를 의도하는 것은 전시물을 강조할 수 있는 전시 연출의 한가지 방법이다. 연구 대상인 환기미술관의 경우는 건축 내부에 또 다른 건축을 삽입시키는 방법으로 공간의 차별화 된 다양성을 의도했다. 이러한 '건축적 오브제'의 삽입은 단순한 형태로 표현된 외관을 내부 공간에서 새로운 시각적 효과로 이끌어낼 수 있다.

구체적인 건축 구성 요소에서 보이드(void), 스킵 플로어(skip floor), 매조넷(mesonet) 등의 수평적 건축 구성 요소의 변환으로 연출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계단이나 경사로의 수직적 동선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그 주변 공간이나 테두리 내부 공간에 바닥면의 삭제, 이질 구조체의 삽입 등으로 공간적 수법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러한 수법은 동선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시각적 변화를 의도한다.

(3) 공간 구성에 따른 매개 공간의 연결 수법

미술관의 내부 공간은 전시공간과 비전시공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건축가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통해 공간의 연결과 분리를 계획한다. 첫째, 고정된 되거나 이동 가능한 벽체를 이용하여 문제 가능한 공간은 영역을 분리해야 한다. 둘째, 그 영역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셋째, 다른 영역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전이 구역을 제공해야 한다.⁵⁾

대규모의 미술관에서 전시공간과 비전시공간의 분리된 영역을 형성하는 것에 반해, 중·소규모 미술관의 경우, 비교적 작은 규모 내에서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개방하거나 시각적 연결을 의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관람자들의 시각적 움직임을 연계시킬 수 있도록 공간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에서 건축적 구성 요소 중 매개 공간의 연결 수법을 살펴보면 첫째, 전시실 내부에 계단 및 경사로를 삽입한 경우 둘째, 전시실

과 전시실 사이에 다리로 연결시킨 경우 셋째, 전시공간과 비 전시 공간과의 건축 형태 및 건축 재료의 분리를 의도한 경우 넷째, 내부 전시 공간의 외곽에 가벽을 설치하여 그 사이 공간에 동선의 연결을 피한 경우 등의 사례로 분석된다.

3.2. 전시 공간의 시·공간적 효과와 개념

(1) '건축적 산책'에 따른 순환개념과 시각적 효과

건축적 산책로는 단순히 건축 내부의 순환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초기 단계에서의 대지와 건물, 대지와 인간, 건물과 인간 등의 서로의 관계성에 의해 전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개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건축 내·외부의 형태 및 공간에 관련성을 가지며 동선을 통한 공간의 프로그램 구성을 의도한다. 현대 건축에서 르 꼬르뷔제를 필두로 한 '건축적 산책'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첫째, 리시츠키(Eleazer Lissitzky)의 공간론⁶⁾에서 보면, 투시도적 공간(perspective space)은 시공간의 4차원적 세계를 지향하며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른 동적인 특성 속에는 실제 정적이며 3차원의 공간이 존재함을 정의하였다. 관찰자의 연속동작과 공간의 시각깊이에서 생기는 영상적 이미지는 공간과 인간 사이의 자유로운 상대적 관계성으로 공간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 르 꼬르뷔제의 '건축적 산책'의 개념은 지상에서 옥상까지 연속되는 경사로를 이용한 움직임은 인간에 의한 공간의 장면 변화를 시작으로 한다. 이는 물체와 물체와의 관계를 통한 건축적 경험, 매스의 배치에 따른 건축 구성의 역할 등으로 건축 내·외부 경관의 다양성을 유도하였다. 그러므로 건축 주변 맥락과의 조화를 동시에 지각하게 되는 효과도 동반한다.

'건축적 산책'의 유형으로 건축가에 의해 기획된 동선 연출이나, 파노라마의 연출 기법을 사용하는 상대적 미로(relative labyrinth) 공간은 모더니즘의 균질 공간의 삭막함에서 벗어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하지만, 이것은 관람자의 관람 자율의지를 구속한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다. 안도 다다오의 '명화의 정원'에서 보여지는 동양적 사교의 유희적 공간 개념에서 사전에 철저히 기획된 순환 동선을 의도하고 있지만 자율적 선택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절대주의가 아닌, 상대주의적 관점이 현대의 미술관

6) 러시아 구성주의의 말레비치가 주장한 Pro-unovis는 사물을 중심으로한 표현주의 운동에 대항하기 위한 비테브스크 예술학교의 한 그룹이다. 리시츠키는 말레비치의 건축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간과 물체에서 관찰자의 3차원적 공간에 대해 논리를 펼쳤다.

7) 르 꼬르뷔제의 '건축적 산책'의 개념은 오귀스트 페레(Auguste Perret)의 프랭클린가의 아파트에서 옥상정원의 산책로 공간계획에서 착안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건축사적 관점에서는 플린 로우가 19세기 건축처럼 건축 체계가 약화되었을 때 인간의 운동 개념이 강화된다고 하였으며, 이는 건축 프로그램과 인간의 운동 사이에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1980년 이후, 독일 건축 이론가인 아돌프 히데프란트의 동적 시각 개념인 데스틸, 큐비즌 등의 현대에 이르는 건축적 경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5) 국립 중앙박물관, 박물관 건축과 환경, 1995, p.109

동선에 중요한 개념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⁸⁾건축가가 기획한 공간 연출은 동선의 결절점에서 단일한 선택을 의도하지만, 관람자들에게 자율적이고 다양한 선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법적 모색이 요구된다. 내부와 외부의 분리된 동선의 흐름을 계획하는 경우와 내·외부의 교대로 산책하는 동선 처리의 경우로 나뉘는데, 한국 전통민가의 배치에서 후자의 예가 마당과 가옥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이해된다.

(2) 픽처레스크(Picturesque)⁹⁾의 형태와 공간의 개념

90년대 이전의 대형 전시 공간의 평면 구성은 컨베이어 벨트로 상징되는 포디즘(Fordism) 생산 방식을 차용하였다. 미술관 내부 중심공간에서 출발한 동선의 시작은 건축가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결정론적 동선에 따라 형태를 만들어 갔다.

현대에 들어와서 다양해진 문화 공간에 대한 요구에서 '공간의 효율과 명쾌성'이라는 명분보다는 감성적, 상대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표출하였다. 그러므로, 건축가가 결정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단조로운 공간 구성이 아닌 관찰자 즉, 관람자적 관점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 시, 공간의 3차원적 자각의 변화를 통한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다소, 관찰자의 주관성에 의해 전시 공간의 의도에서 벗어나거나 산만해질 우려도 있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다양하고 재미있는 공간을 체험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전시 공간의 관람이 학습이나 훈련이 아닌 감상의 행위에서 보면 픽처레스크(Picturesque) 개념의 도입은 현대에 들어와서 그 중요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4.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 도심부 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미술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으며, 주변 맥락적 상황을 반영한 미술관을 선정·분석하였으며, 전시 연출적 측면에서의 형태와 동선을 연구하여 미술관의 공간구성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4.1. 한국의 전통 건축 지역에 인접한 미술관 건축(A)

인사동과 더불어, 과거와 현재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경복궁 동쪽 가로변 일대 삼청동, 소격동의 문화 시설들은 소규모 미술관을 중심으로 지역적 장소성을 구축하고 있다. 도로 내부 블록의 한옥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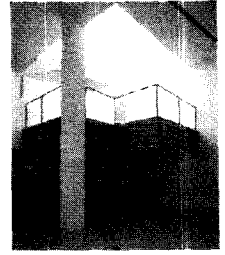
8) Le Corbusier의 성장하는 미술관(1939)의 계획안이나 F.L.Wright의 Guggenheim 미술관(1943-59)에서 관람자들에게 강한 동선의 유도권을 지시하는 건축가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초기 모더니즘 건축가들은 과거의 미술관 형식과 다른 건축적 개념을 보여주었지만, 전시 공간의 안정성과 방향 진행성에 문제가 대두되었다.

9) 픽처레스크의 개념은 18세기 말의 영국의 풍경식 정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6, 17 세기의 이탈리아와 프랑스 정원은 베루사이유의 정원에서 볼 수 있듯이, 기하학적인 형태를 가지는 반면에, 영국은 이를 절대주의적 배치라고 거부했다. 대신, 풍경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성과 변화, 불규칙성이 강조된 보다 자유로운 느낌을 정원에 표현하였다. Peter Collins, 근대 건축의 이념과 변화, 이정수 역, 태림 문화사, 1989, p.29

정독 도서관등의 구 시가지가 보존되어 있는 맥락적 특성은 문화 시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형성되고 있다. 고도 제한이 법적으로 규제되



<그림 1> 현대갤러리 외관



<그림 2> 현대갤러리 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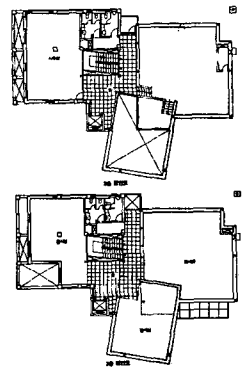
고 있지만, 전통 보존 지구가 해제되면서 다양한 디자인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근 '경복궁'의 장소성을 반영한 화강암 등의 건축 재료 및 건축 색채의 선택에서 역사적인 의미와 시간의 중첩에 의한 지역적인 특성이 미술관 건축에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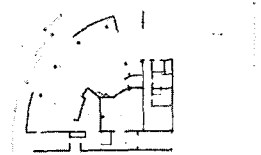
<그림 3> 아트선재센터 외관



<그림 4> 아트선재센터 내관



<그림 5> 현대갤러리 2·3층 평면도



<그림 6> 아트선재센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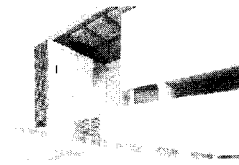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은 노후화 된 주변 건축물과 다소 협소한 대지면적으로 인해, 미술관 건축의 계획시 난점이 따를 수 있으나, 한국의 전통적인 맥락을 연계시킨 12개 정도의 미술관 건축 디자인은 타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중, 현대 화랑은 박학재 선생의 옛 건물의 흔적과 격자 콘크리트가벽을 이용한 건축 외관을 형성하고 있는 사무 공간을 개축한 미술관이다. 추상적인 격자의 프레임을 한 외관과는 달리, 내부의 공간 디자인은 계단과 경사로로 동적이며, 자유스러운 관람을 유도하고 있다. 상층부의 격자 가벽에 의한 경복궁의 전경은 액자와도 같은 시각적 효과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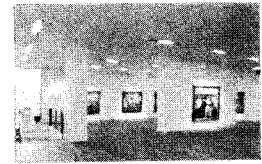
D그룹의 경주 선재 미술관은 최근 종로구 소격동에 아트 선재 센터를 설립하여,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연극, 영화 및 콘서트가 두루 가능한 250석 규모의 소극장과 150평, 70평 규모의 전시실을

<표 1> 사례분석A

사례 대상	현대 갤러리	아트 선재 센터
주요 건축개념	과거와 현재의 이중적 시간성을 건축 입면에 표현 /공간 속의 공간 /건축적 산책의 개념 도입	전통 건축의 단순한 기하학적 간결미를 매스, 입면에 연출 / 건축적 구성에 따른 매개공간의 연결 수법
지역적 맥락성의 건축적 해결 방안	1.경복궁의 의장적 측면을 반영한 외관의 재료와 색채의 동질성을 추구한다. 2.경복궁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외부 격자 가벽을 통해 액자식 구성을 의도했다.	1.주변 한옥의 건축적 재료와 디자인 모티프를 바탕으로 화강암을 사용하여 옛 성곽의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2. 전시 공간과 서비스 공간을 기능의 분절, 매스의 분절, 건축 재료의 분절을 통해 패쇄적인 전시 공간에 비해 계단실의 경우, 외부 한옥층의 전경을 내부로 인입시키고 있다.
공간의 구성과 특성	1.전시실과 보조 공간과의 뚜렷한 구분없이 전시공간 내부에 수직 이동의 계단 및 경사로를 계획하여 공간적 체험에 중요성을 두었다. 2.전시실의 바닥은 보이드(void)된 입체적 구성과 동시에 스킵 플로어(skip floor)를 통한 공간적 다양성을 의도했다.	1.전시공간의 융통성있는 대응을 위한 전시 가벽을 적극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려하여 전시의 융통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복합 문화 공간의 다양한 기능에 따른 영역별 구분을 위해, 건축의 장의 시각적 분리, 평면구성과 동선 분리를 시행하였다.



<그림 10>가나아트센터 외관



<그림 11>가나아트센터 내관



<그림 10> 가나아트센터 1·2층 도면

설로의 변환을 의도하고 있다. 주택가에 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단일한 매스의 건축보다도, 주변 주택과의 맥락을 의식한 분절된 매스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경사지의 장점을 이용한 배치를 통해, 다양한 동선과 시각적 체험을 의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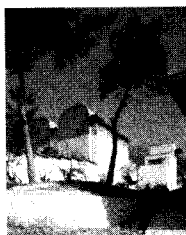
환기 미술관은 종로구 부암동의 주택가와 인왕산이 만나는 언덕에 위치해 있으며, 작은 부지와 전시관에서 보여지는 사설 미술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최초의 추상화가 김환기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는 기념 공간이라는 상설 전시장과 기획전시에도 무리 없는 두 개의 원통형 전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협소한 주변 도로로 인한 장소적 특성으로, 미술품의 반입동선과 관람동선과의 교차가 이루어짐으로 미술관 외부와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공간 계획은 자연적, 인공적 주변 맥락과의 조화를 통해, 매스의 부가적인 방법으로 한국적 전통 건축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갖추고 있다. 각각의 독립적 영역과 기능에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하였다. 선재 아트 센터는 모퉁이 대지를 이용한 곡면 처리한 매스를 가지고, 전시실과 계단실의 투명, 불투명 건축 재료와 개방적 패쇄적 건축 의도를 기하학적 간결미의 외관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계단의 투명성이 외부 한옥의 전경을 내부로 인입하여 시각적 개방감을 확대시켰으며, 인근 한옥을 이전하여 신축 건물과의 의미론적 연계성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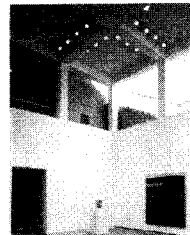
4.2. 경사지 주택가의 미술관 건축(B)

평창동 등지에서 문화 시설들은 경사지 고급 주택가 일대의 장성과 접근성으로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인사동 화랑가와 연결되어, 타 지역민과의 동질적 문화 체험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문화 시설은 여유로운 주변 공간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번잡한 업무지역이나 상업지역과는 대별된 전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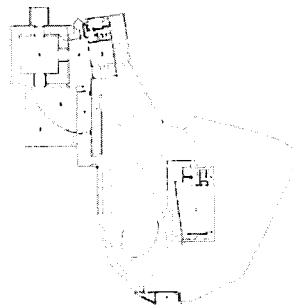
비교적 도심부 내 타 지역보다 여유로운 대지 면적과 건축 공간은 풍부한 전시 관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시



<그림 7> 환기미술관 외관



<그림 8> 환기미술관 내관



<그림 9> 환기미술관 1층 평면도

<표 2> 사례분석

사례대상	환기 미술관	가나 아트 센터
주요 건축개념	1.한국전통 건축의 배치 및 동선의 개념 도입-건축적 산책의 개념 2.유희의 동선 3.기획된 공간 스토리 동선 (선택적 채택)-픽처레스크 개념 4.공간속의 공간의 개념	매스의 분절 및 건축의 공간적 시각적 개방성과 패쇄성의 혼용 건축적 구성에 따른 매개공간의 연결수법
지역적 맥락성의 건축적 해결 방안	1.본 경사 대지의 계곡축을 이용한 건축군의 배치 2.주변 경사지의 주택군과 유사한 매스의 분절 3.내,외부 교차하는 동선의 연결로 주변 자연을 조망 (내, 외부 교차산책)	1.경사대지의 내부에 계단 및 마당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의 강한 접근성 (approach)을 의도 2.건축물 외관은 패쇄적 입면과 매스의 분절로, 내부는 건축 재료 및 구성의 투명성을 의도함과 동시에 주변 전경을 내부로 인입한다.
공간의 구성과 특성	1.'모'자형 내부 중정형 공간은 이중의 벽으로 공간을 처리하여 계단을 통한 '공간속의 공간'을 형성한다. 2.내, 외부의 교차 동선과 함께, 건축재료를 내, 외부 구분 없이 사용하여 공간의 순환적 흐름을 의도한다.	1.전시 공간, 사무 공간, 서비스 공간의 분리는 내부 중정에서 명확하게 파악된다. 2.내부의 전시실은 연결 복도, 옥외 테라스, 계단 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계곡의 흐름을 이용한 축을 건물 배치의 축과 일치시키면서, 내·외부가 교차되는 동선으로 주변 자연 환경을 내부에 인입시키고자 하였다.

내부의 '口'자형 중정형 공간은 이중의 벽으로 동선 처리하여, 관람자의 움직임을 통해 내부 공간으로 접근시킨다. 윤희의 동선 개념으로 기획된 공간 스토리는 관람자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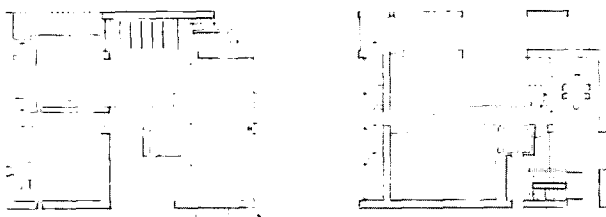
평창동 가나 아트 센타 외관은 면의 막힘과 트입, 매스의 분절로 주변의 주택들과 시각적으로 조화롭게 구성하였으며, 외부벽면의 폐쇄성과 내부 마당의 개방성이 자연 경관에 대한 시각적 개방감을 강조시키고 있다. 마당을 중심으로 한 '口'자형 배치는 사무공간, 전시공간, 기타 서비스 공간과의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연결 복도, 연결 다리, 테라스를 이용하여 내부 마당으로 향한 개방적 효과를 의도하였다.

4.3. 강남 상업 블록내의 미술관 건축(C)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의 미술관은 주변의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복합적 건축 형태와 주거 지역 내의 소규모 단일 건축의 형태로 구별된다. 이들 미술관은 강북의 노후화되고 슬럼화된 제반 시설의 부재 및 주요 수요자 층의 이동으로 인한 시대적 변화로 형성되었다. 강북 지역의 도심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가로 환경과 도로 양측면의 중 소규모 상업 건축의



<그림 13> 샐터화랑 외관 <그림 14> 샐터화랑 내관



<그림 15> 샐터화랑 1·3층 평면도

주변 환경은 주변 관람객들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건축적 수준이 높은 다양한 요구로 해석된다. 주변 상업지역 중소규모 건축의 맥락적 특성과 문화 시설의 서비스적인 공간의 배려를 통해, 관람객들의 유입에 적극적인 건축적 경향을 가진다.

샐터 화랑은 외부 공간과의 연속된 공간으로의 벽체와 매스의 형성을 통해, 계단, 길, 작은 광장, 대문 등의 외부 공간의 요소를 내부에 매개시키는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주변 맥락에 충실한 격자형 벽체가 솔리드(Solid)와 보이드(Void)가 혼재된 내, 외부의 공간을 구축하며, 내부 공간을 다양한 형태

로 구성하고 있다. 분산된 전시 공간의 연결 공간에 옥외 공간을 도입하거나, 창을 통해 외부 전경을 적극 끌어들이어 주변 지역의 특성을 건축 내부에 투영한다. 외부 공간을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시 공간으로 이어주는 공간의 성향은 내부 공간에서도 메자닌(mezzanine) 영역을 두어 공간적 경험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내부 공간 시설물들 중, 지하 전시실 천장과 중정 위의 다리는 개폐 및 이동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전시실의 통풍 및 전시물의 반입이 용이하도록 의도하였다.

<표 3> 사례분석 C

사례대상	샐터 화랑
주요 건축 개념	1. 내, 외부 공간의 연속성 2. 벽체와 매스의 중첩 3. 솔리드와 보이드의 다양한 매스의 결합
지역적 맥락성 건축 해결 방안	1. 지상층은 외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단, 길, 마당을 확보하여 관람자 및 보행자의 인입 2. 주변 도심 격자 그리드를 입면에 이용
공간의 구성과 특성	1. 공간의 분절을 통한 전시 공간과 매개 공간과의 다양한 결합. 2. 내, 외부의 인위적 구분 없는 연속된 공간

5. 결론

본 연구 대상으로 분석된 90년대 중·소규모 미술관은 건축규모 및 부지조건을 바탕으로, 전시 시설의 공간구성과 연출특성이 건축 자체의 문제 해결에서 관람자 우선의 관점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정보성, 대중과의 친근성, 기능상의 편의성 등으로 관람자들에게 이상적인 전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최대의 고려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기존의 경직된 공간구성과 연출에서 탈피하여 관람객들과 함께 영유하는 공간을 목표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관람객들의 입장에서 흥미와 지적 욕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공간구성과 연출특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간구성 측면에서 중·소규모 미술관은 건축과 도시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는 기존의 주변 맥락을 수용하는 건축적 형태를 취하면서, 외부의 동선을 내부로 적극 인입하는 건축적 태도이다. 건축의 의장적인 측면에서 관람자에게 문화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을 의도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내부 공간으로 연결시키는 여유 공간과 각종 부대 시설 및 편의 시설을 수용함으로써 기능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연계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전시공간 구성에 있어 중·소규모 미술관의 전시 공간은 건축 개념의 변화 이전에 관람자에 대한 배려가 먼저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술관의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단순한 공간의 소요가 아닌, 전시품의 형태적·재료적 특성을 반영한 공간적인 대응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다. 중소규모 미술관은 사전 기획된 전시의 속성을 건축계획 이전 단계에서 전시 시설의 건축 규모

및 연출 기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일관된 경향의 전시품 위주로 전시하는 미술관일 경우, 다방면의 미술 경향을 포괄하여 전시할 경우 등의 전시품에 대한 공간적인 배려는 미술관의 생명력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셋째, 전시기획적 측면에서 관람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기타 행사를 통해, 문화 공간으로의 일반인의 관심으로 인한,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 전시 자체가 대중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의도하여야 한다.

넷째, 전시연출적 측면에서 보면 과거 문화시설들의 건축적 시도와 노력을 기반으로 다져진 한국 전통성의 표현은 타 용도의 건축에 비하여 미술관에 대한 심미적인 배려로써 비교적 유리한 입장에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준 높은 건축적 성향은 미술관 건축에서 배치, 내 외부 형태, 동선의 해결, 공간 구성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되고 있다. 또한 시, 공간적 측면에서 서구의 건축 논리와와의 합리적인 결합으로 관람자들의 움직임으로 인한 시, 공간의 변화를 통해 전시물과 건축 공간의 다양한 체험을 의도하고 있다. 결국, 관람자들의 자율 의지에 의해 경험되어지는 미술관의 공간 디자인은 한국적인 공간 인식과 동시에, 서구의 '건축적 산책'과 팍처레스크의 개념을 접목시키면서 동선의 이동에 따른 공간의 체험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관의 주요 이용자들과 건물이 위치해 있는 지역적인 특성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 한국의 90년대 중, 소규모 미술관의 디자인이 타 용도 건축물의 건축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근접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는 연구 대상의 미술관은 도심의 재편성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이해될 수 있다.

참고문헌

1. 국립 중앙 박물관, 박물관 건축과 환경, 1995
2. 서상우, 현대의 박물관 건축론, 기문당, 1995
3. 홍익대 환경개발 연구원, 박물관의 전시.환경 지침에 관한 연구, 1997
4. Peter Collins, 근대건축의 이념과 변화, 이정수 역, 태림문화사, 1989
5. Ven de Ven, 건축 공간론, 전진원. 고성룡 역, 기문당, 1987
6. Bruno Zevi, 공간으로서의 건축, 최종현. 정영수 역, 세진사, 1990
7. Bruno Zevi, 건축의 현대 언어, 이해성 역, 세진사, 1992
8. Norberg-Schulz, 건축의 의미와 장소성, 진경돈 외 역, 미건사, 1995
9. 임석재, 한국 현대 건축 비평, 예경 출판사, 1998
10. 최윤경 외, 미술관건축 『건축』 대한건축학회지, 제42권 제8호, 1998
11. 이관석, 현대 박물관에 나타나는 '건축적 산책'의 유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4권 3호, 1998
12. Levin, M.D. The modern Museum, Dvir PublishingHouse Ltd, 1983

<접수 : 1999. 5. 6>